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 호소에 응해서 ~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 머리말

2019 년 교종 프란치스코 일본사목 방문(11 월 23 일~26 일)의 테마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였습니다. 이것은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에서 발표된 「그리스도인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중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하는 피조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교종은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여러 다양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황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되돌아 보고 기도하면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목교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중에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교종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함께 사는 집을 소중하게』 208)

1. 창조주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온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과 언제나 함께』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날이 밝고 태양의 선물」이라고 하며 자연의 조화속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노래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에 나오는 「Laudato Si」(주님은 찬미받으소서)와 같은 마음입니다. 시편은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 줍니다(19: 1).」라고 노래 부르고, 바오로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천지창조이신 그 분,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로마 1: 20). 하느님은 장엄한 우주의 조화를 섭리하시는 동시에 우리들의 지구에 있는 작은 생물의 생명까지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습니다(창세기 1: 27). 여기에 인간 생명 존엄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일같이 사람의 목숨이 잃게 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가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아픔이나 분개, 그리고 원래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을 잃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명 가치를 모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하느님의 온유함

《하느님께서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느님의 「온유함」이란, 관대하고 따뜻하다는 일본어의 말 그 이상으로, 매우 적절하게 「인간을 걱정함」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 무르고 약한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하느님의 의지와 그 배려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이런 하느님의 배려라고 하는 온유함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활 안에서 어느 만큼 하느님의 온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생활에 쫓겨 자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곤궁해 지거나, 큰 병을 앓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사는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이가 들어도 사는 의미와 목적을 식별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앙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자신이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온유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는 힘과 기쁨을 느끼면 사람은 저절로 사람에 대하여도 자연에 대하여도 온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며 이용하려고도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더욱이 모든 것의 독자성과 자신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과의 공존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소중히 합니다.

3. 사랑의 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바오로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고 말합니다(로마 8: 39). 피조계의 모든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원동력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소중히 하며 성장시키는 힘, 에너지, 열정이 되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불꽃으로 생명을 태울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켈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아닙니까! 1948 년 38 세의 때, 로데타 수도원을 나온 테레사는 켈커타의 슬럼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단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그녀가 나중에 창립한 수도회도 「하느님 사랑 선교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수도회의 목적은 굶주린 사람, 알몸인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 사람들로 부터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 사랑 받지 못한 사람,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마더 테레사의 성인 시성식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행함에 있어 그것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은 가령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태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손을 내미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책무는 사랑에 대한 사명입니다. 무상의 사랑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제약에도 매이지 않고, 언어, 문화, 인종,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4. 생명과 평화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상처 입힐 권리도 없을 뿐더러,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들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께 사랑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느님께 사랑 받는 아이들처럼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고, 마음을 열고 어울려야 합니다. 이처럼 「생명과 생명의 통교」를 사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기본생각은 「모든 것은 연결 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감각을 더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위한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전부 연결됩니다. 환자나 고령자, 어린이들과도 연결됩니다. 이 생명의 통교를 사는 것이 교종이 말씀하시는 「생태학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소위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태어나기 전의 태아의 생명 문제까지 모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 요한 23 세 교종의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지상의 평화는 하느님이 정한 질서가 전면적으로 존중되어 지지 않으면 달성되는 것도 보장 되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정한 질서란 이 생명과의 통교이기도 하며 생명과의 통교 완성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란 하느님 창조 사업의 완성이며 평화를 위한 활동은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어지럽히는 전쟁은 1981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이 평화선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소행이며, 인간의 생명 파괴이기에 전쟁은 죽음입니다.

5. 가난한 이들에게 손 내밀기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21 세기에 들어 선 순간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기후변동에 의해 호우나 태풍 등 막대한 자연 재해에 의해 많은 생명들이 빼앗기고, 집과 재산을 잃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란 곤궁한 이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고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 사는 사람들도, 가치관과 이상을 잃은 젊은이들, 위기에 처한 가정, 병자, 수형자, 난민, 이주자, 고독한 고령자도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지구는 「모두의 공동의 집」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 세계의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의 비탄에 귀를 기울이자고 호소합니다. 바오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1 코린토 12·26)」라고 말합니다. 교종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느님 존재를 깨닫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새로운 복음선교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 『복음의 기쁨』 N. 198)

6. 환경위기와 차세대에 대한 책임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의 해일과 그 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가 다시금 과학과 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의해 지구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들 주변에서부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과잉 소비 사회의 시대에 있어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직시해 보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지구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사회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묻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회칙 『찬미받으소서』 N. 160) 이 질문은 단지 환경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존재 의미, 또 사회 생활의 근거에 있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세계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고 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복잡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산 활동과 소비 생활은 지구를 파괴시키고 미래의 인류에게 일회용 쓰레기를 남겨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릴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7. 생태적 회심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 이외의 타인이나 일부의 기업인이라 생각하며 우리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물질적인 풍부함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어 한사람 한사람이 겸허하게 회심을 계속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호소하는 4개의 「생태적 회심」을 기억해 봅시다. ①하느님과의 관계 회심 ② 타인과의 관계 회심 ③ 자연과의 관계 회심 그리고 ④ 자기와의 관계 회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외침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게 무관심한 우리들을 회심으로 초대합니다. 교종은 가난한 사람의 외침은 주님에게 스스로 자신을 맡기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느님의 개입을 희망하는 외침이라고 말합니다.(참조 2018년 제2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세계 기도」 교황님 메시지)

바오로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로마 12: 15~16)」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끊고 교만을 버리며, 무관심의 벽을 부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공감의 고리 맺기를 사회에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교종은 2019년 5월 7일에 90세로 돌아가신 지능장애자를 위한 라르슈 공동체의 설립자이신 장·바니에씨의 장례식에 메시지를 보내어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약함을 당신에게 이끌어 주시는데, 장·바니에는 그런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종교나 사회적 입장을 넘어 형제자매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도록 힘썼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8. 길, 진리, 생명인 그리스도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준 생명이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하느님에게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오 16: 25)」 예수님은 같은 생명이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생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더 풍요로운 「생명」을 잃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육체의 생명이 다 한다해도 그것을 넘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선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 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 8: 12)」 「모든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입니다.

9. 함께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비와 관대함에 마음을 열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기도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매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상처받는 이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책임을 다 하는 각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시대의 증표」를 지켜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그 존엄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본도 세계도 매일 매일 사회의 상황은 크게 변해가고 생명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복잡합니다. 각 가정의 가족의 문제로는 부부, 성과 생식, 부모와 자식,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 등, 또한 삶과 죽음을 둘러싼 문제로는 출생전 진단, 장애인, 자살, 안락사, 사형, 생명과학, 뇌사와 장기 이식, 인간 배아, 인간 클론(clone), 유전자치료, 환경 문제 등입니다. 일본 교회 사명은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본연의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생명에 관한 현대의 복잡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향해서 걸어 가기 위한 도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피조물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도움을 청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빛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주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갖은 자리를 보여 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교종 프란시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dauto. Si) 함께 사는 집을 소중하게』 210)